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국회의원 황명선

보도자료
PRESS KIT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11호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5 인본빌딩 3층

T. 02-784-9820 / F. 02-6788-6115
T. 02-784-9820

보도일시	참고자료	사진	문의
2024. 10. 21.(월) 배포즉시 보도가능	-	-	황명선의원실 02-784-9820

황명선 의원, “수출입은행, 체코 원전수주 여신지원 신중하게 접근해야”

-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관심서한 논란... 정부의 졸속 추진이 가장 큰 원인
- 황명선 의원, “체코 측 요청 있는 경우 관심서한 상관없이 타당성 검토 철저히 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의 체코 원전 수주 금융지원과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명선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이 체코 정부기관들과 MOU까지 맺어놓고 와서 관심서약이 확약은 아니라는 입장만 반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졸속 추진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상향한 것은 대형 인프라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것” 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다만 이번 금융지원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문제도 선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 수출을 줄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며 과거 해외 투자 실패 사례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지난 10년 동안 수출입은행의 관심서한 제출 현황과 사업지원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요구했다. <끝>